

편집자 편지

- 2024 파리패럴림픽 엠블럼이 전하는 메시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파리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20시 24분에 파리올림픽 엠블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게임과 장애인 올림픽 게임 엠블럼을 동일하게 채택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엠블럼 하단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로고인 오륜기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로고인 아지토스(Agitos, ‘나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가 두 대회를 구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엠블럼에 담긴 메시지는 성취(금메달)와 에너지(불꽃), 자유·평등·박애(Marianne, 프랑스를 의인화한 여성의 이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엠블럼은 통상 대회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패럴림픽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이 장애에서 사람으로 옮겨간 느낌입니다.

패럴림픽은 그간 이질적 존재들의 특별한 대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치유와 재활’을 목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장애, 치유, 재활을 대회의 정체성과 가치로 인식하다 보니,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면서 감동의 원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패럴림픽 관련 언론보도 행태, 언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중의 인식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두 번째 모니터리포트 <포커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지윤 주임연구원께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의 이행보고서를 둘러싼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간 건설적인 대화를 기록한 회의록을 기반으로, 인식제고 관점에서 협약이 당사국과 언론매체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주셨습니다.

고영란 연구원님은 올해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 분야 예산을 체계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손영수 선임연구원님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구축 및 운영)’ 추진 성과를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주셨습니다.

<이슈포착>에서는 인권활동가이면서 작가인 김효진님께서 문학 활동, 장애 문학인들과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문학의 지평 확대 필요성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장애인아카데미 이진 이사님은 소통과 변화, 성장의 패턴은 시간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달장애인 미술교육에 참여했던 다양한 분들의 사례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영화평>서는 류미래 감독님께서 우리들에게 봐야 할 영화 속제를 많이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지혜이면서 평화와 행복한 동행의 선결 조건인 ‘선 넘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한 기부플랫폼에서 국내 장애인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러 파리에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기간에 파리, 독일, 노르웨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엠블럼에서 보여준 변화를 파리에서 느끼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7월
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

포커스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법령 모니터링
손영수 | 선임연구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언론의 역할
한지윤 | 주임연구원
- 2024년 장애인체육 분야 예산 분석
고영란 | 연구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법령 모니터링

손영수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작년 3월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¹⁾을 발표하면서 9대 정책분야 · 30대중점과제 · 7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향후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센터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올해 ‘장애관련 법령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사업의 추진방안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정부의 이행정도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²⁾에서 나타난 분야의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며, 이번 회기의 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일반 현황과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마련되었는지를 추적하고, 현 시점에서 해당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의 시책을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그때까지도 적극적인 장려정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국 예술정책과에 배정하면서 이 업무를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사회복지의 정책대상으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2020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전기를 맞이했는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지방위원회의 설치,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구성했다.³⁾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코로나19로 55.4% 감소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문화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⁴⁾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였다.

2022년 정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등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장애예술인 관련 국정과제(일부 발췌) >⁵⁾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활성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등 제도개선(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개정 등)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온라인 정보 플랫폼 ‘이음온라인’을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으로 확대·운영(’23년~) - 대표적 국제 장애예술인 축제 참가 경비와 작품 제작 지원 등 장애인예술 교류 활성화 지원(’23년~)
(전략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대표 공연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 국제 대표 축제 참여 지원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3.09.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56556653>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p5, p88.

3) 장애인예술의 필요성과 발전에 필요한 정책, 장애인뉴스, 2023.06.13. <https://www.welvoter.co.kr/41752>
 4) 2019년 연 217만원 2020년 연 218만원
 5) 국정과제 57,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실천과제)

<관련 법률 검토>

의안정보시스템⁶⁾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대한 의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건의 ‘일부개정안’만이 있었으며, 이 중 3건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⁷⁾ 제안 경위 >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36	김예지의의원 등 11인	‘21.7.9.	상정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9.13.)
				소위 심사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1.12.7.)
	2115379	이종성의원 등 13인	‘22.4.25.	상정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8.19.)
				소위 심사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2.8.24.)

먼저 ‘김예지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당시에는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부채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의견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해당 시장에서의 비(非) 장애예술인과의 경쟁 제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선택권 및 재량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⁸⁾.

다음으로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앞선 김예지의의원의 개정안과 동일하게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예술인 기본계획⁹⁾에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22년 8월, 3건의 의안 중 최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안건과 관련 된 국회의회의록¹⁰⁾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제9조의2’의 신설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적으로 앞선 국정과제 시행 세부내역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강제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개호 의원’은 강제 규정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병훈 의원’은 강제 조항보다 필요한 조치는 시행령에서 다루자는 의견이며, ‘김승수 의원’은 앞선 이병훈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수정의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참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관련 회의록

○소위원장 이용호 (생략)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생략)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안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이종성 의원안의 경우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략) 국가 또는 지자체는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략) 양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후략)

○소위원장 이용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김예지, 이종성 의원님 발의 내용 중 구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 추진, 장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마련 등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류호정 위원 (중략) 저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좀 더 강제적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략) 그래서 이종성 의원님 우선구매 2항의 재정 지원 근거는 그대로 두되 강제적 수단을 강화하면 실효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략)

○이개호 위원 (중략) 강행규정이, 의무화 규정이 타당한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실제 그러한 장애인 우선구매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유리한지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6) <https://likms.assembly.go.kr>, 2024년 5월 기준
 7) 의안번호 2117271
 8) 공정거래위원회, 의안번호 211436 검토보고서 중, 2021.9월
 9) 「장애예술인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10) <https://likms.assembly.go.kr/record/>

< 「장애예술인법」 제9조의2 >¹²⁾

제 9조의 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 ‘장애예술인 · 단체 창작물 유통지원 확대’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이행 정도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동일과제 다른 추진과제인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운영’의 경우 확인해본 바, 24년 5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측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입찰을 진행 중으로¹³⁾, 정부는 해당 추진과제를 원활히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병훈 위원 (중략)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강행조항은 부적절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시행령에서 그걸 공공기관 평가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략)
○김승수 위원 (중략)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서 또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면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 자체에 이중성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이 저는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제399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中, 2022년 08월 24일

앞선 논의를 거쳐 결과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 구매 총액 3%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¹¹⁾으로 정하고 있다.



11)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12) 본조신설 2022. 9.27.
13) 입찰공고번호(제2024-11호), 문화체육관광부>알림-소식>입찰정보
https://mcst.go.kr/kor/s_notice/notice/bidView.jsp?pSeq=1389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언론의 역할

-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지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임연구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으로 접근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권의 보장은 ‘인식’에서 출발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차별적 시선과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언급하고 있는 조항이 ‘제 8조 인식제고’다. 인식제고에는 크게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다. 목적은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 장애인의 능력과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캠페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인식 제고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8조 인식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 3) 장애인의 기술, 자립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그렇다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당사국의 이행현황을 보고받고 평가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곳이 있다.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각 당사국은 4년마다 협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심의결과를 최종견해 형태로 받아들 수 있다. 최종견해 전에 당사국 대표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데, 관련 회의록 내용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가능해볼 수 있다.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효 이후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6개의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그 중 15개국은 2차 보고 및 심의까지 진행되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인권 보장의 기반이 되는 인식 제고, 특히 언론의 인식 제고에 대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 단편적이지만 각 국가별 건설적인 대화를 기록한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미디어’, ‘방송’, ‘언론’, ‘신문’, ‘보도’, ‘인식제고’를 키워드로 각 국가별 회의록을 확인했을 때 106개 중 28개의 국가가 언론의 인식제고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질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미디어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몰타에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권리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었는가’, 튀르키예는 ‘협약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미디어에서 장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가’ 등을 질문했다.

위원회가 질문한 내용을 이행주체별로 구분해보면 정부와 언론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질문은 총 35개로 정부 18개, 언론 17개다. 정부에 대한 질문은 ‘언론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했는지’가 중점적이다. 교육에선 진행여부와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 단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질문했다. 평가에서는 언론이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조치와 모니터링에 대해 확인했다. 언론은 인식 개선과 기여도다. 인식 개선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도했는지,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없었는지 등 인식제고에 대해 확인했다. 기여도는 보도를 통해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였다.

언론의 역할이 언급된 빈도를 보면 거의 정부와 비슷하게 언급되었다. 위원회가 인식 제고에서 정부 못지않게 언론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는 언론이 장애인(인) 인식을 개선하고 권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국도 2022년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강화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현재 우리 정부와 국내 언론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을 긍정적 이미지로 보도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과정 중 언론 관련 질문 (2011년 ~ 2023년)>

국가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질문
도미니카 공화국	- 미디어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체코	-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한 미디어 참여 우려 - 언론이 협약 캠페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언론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존엄한 방식으로 대우하도록 어떻게 장려되었는가
룩 제도	- 미디어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리셔스	- 미디어에서 장애인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슬로바키아	- 장애인 단체의 인식 제고에 대한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언론은 장애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과테말라	- 미디어는 대중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국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는가
볼리비아	- 인식 캠페인의 미디어 측면의 일관성은 어떤가, 일회성 활동인가, 언론이 체계적으로 관여했는가
에티오피아	- 장애인 이슈 캠페인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현재 캠페인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몰도바	- 장애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는 데 대중 매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이란	-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가
모로코	- 언론을 통해 따라야 할 협약의 원칙에 대한 국가적 계획이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몬테네그로	- 장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에 참여했는가?
세이셸	- 미디어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정보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관여했는가?
수단	- 미디어를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국가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질문
아이티	- 미디어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었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장애인 대표 단체가 언론, 공무원,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인식 교육에 참여했는가
몰타	-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권리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었는가
노르웨이	-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갖든 묘사가 있었는가
스페인	- 미디어 정책 결정에 장애여성과 심리적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 매스미디어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해졌는가
튀르키예	- 협약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미디어에서 장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가
프랑스	- 언론에서 자폐인에 대한 묘사는 틀에 박힌 것이었고 협약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당사국은 언론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가
헝가리	-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중, 특히 언론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가
싱가포르	- 당사국은 미디어에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묘사에 맞서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묘사가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이니셔티브가 취해졌습니까
일본	- 장애인들이 보건의료 및 사법 제도와 언론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했는가 - 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관여했는가
한국	- 공무원, 의료진, 언론을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과 교육에 장애인이 참여했는가 -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강화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토고	- 정부, 언론, 교육, 보건 및 사법 제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노력이 있었는가

국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문
튀니지	- 미디어 및 기타 사회 부문에서 장애인을 언급할 때 부적절한 언어를 다루기 위한 조치는 있는가 - 미디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와 묘사를 다루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모니타니	- 법 집행관, 언론 종사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공무원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출처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별 회의요약본)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론이 역할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보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적이거나 차별이 내포된 기사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 분야다.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소개, 지원 등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급증했다. 그 중 장애인이 무대에 서거나 장애 관련 내용의 공연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연극이 관객에 물었다...사랑에 자적이 필요한가요?

다운중후군 여성의 사랑 다룬 연극 '캘리포니아' 내일까지 공연

다운중후군 무용수 백지은 주연 프롬프트 배우가 무대밖 지원도

작가 웨디엘 "연극서 담 못 얻어도 관객들 신입전 켜는 경험 했으면"



있을 때 무대 밖에서 배우에게 대본을 읽어 주는 역할이다. 많은 대역로 연극에 출연한 권태의 배우 정수영이 이그레스를 연기한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공개한 점도 눈에 띈다. 웨디엘은 "연극 공연에서 프롬프트 배우라든가 연습실 장면을 '대역로'로 찍을 점을 인정 있게 봤다"며 "객실에서 관찰했더니 한국 관객에게도 비슷한 울림을 준다는 생각이 들 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말할말없하게 보이지만 침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 연극 '캘리포니아' 쓴 영국 극작가 웨디엘은 다운중후군 여성의 사랑과 출산을 다룬 작품에 해라리안 제복을 붙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30일 서울 시대를 모두 예술극장에서 만난 그는 "좋아하는 장르가 로맨스 코미디라며 '장애인의 이야기를 일반화하지보다 두 여자가 변화를 겪으며 경험하는 이야기라고 배우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연극은 볼수록 로맨스물의 서사와 구조를 차용한다. 배경은 영국의 어느 도시다. 일바 이그레스와 함께 사는 27살 다운중후군 여성 캘리는 어느 날 프롬프트 배우가 된 날과 사랑에 빠진다. 일바는 캘리는 일

작가 웨디엘은 "일본 연극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 사랑 얘기를 쓴다기보다 사랑 관계는 있고 있는 사람을 위해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느낌이었다"고 소개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원하는 대로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할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관객들이 연극에서 담을 얻지 못 하더라도 신입전을 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극을 연출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다양성에 연극의 초점을 맞춘다. 2008년 영국 런던 무시 사카의 초연과 이듬해 영국 내셔널 사이어 공연,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카의 공연까지 모두 다운중후군 배우가 주연했다. 이번에도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채치를 연기해 도전하는 다운중후군 무용수 백지은(33)이 캘리 역을 맡았다. 원작과 달리 '프롬프트 배우'가 등장한다. 백지은 배우가 대사의 흐름을 놓치거나 대사를 잊

한겨레, 문화 20면, 2024.05.27

위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운중 후군이 있는 한 여성의 사랑을 다룬 공연에 대한 내용이다. 공연에서는 다운중후군이 있는 배우가 주연으로 무대에 선다. 배우가 원활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롬프트 배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무대에 설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사례 외에도 세계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데뷔했다는 보도, 발달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보도 등 수많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사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다. '인간승리', '장애 극복'과 같은 표현이다. '인간승리'는 장애를 감동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한다. 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수식어처럼 붙게 된다. '극복'에는 '이겨내어 도로 회복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장애 극복은 비장애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장애와 극복을 같이 사용한다는 건 장애를 질병으로 잘못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건 한 분야에서 노력해 성공한 한 사람이 아닌 장애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같은 일로 결과를 냈을 때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는다. 장애 관련 기사에서만 사용되는 건 일종의 차별이라 볼 수 있다.

장애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무기력, 슬픔 등의 정조로 표현하는 것도 문화예술체육에서 자주 눈에 띄는 표현이다. 장애나 장애를 갖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적는 건 선전적인 표현이다. 좋은 결과를 낸 장애인에 대해 보도할 때 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장애를 갖게 된 경위가 그렇게 중요할까.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장애를 무기력, 슬픔 등의 정조로 사용하는 건 장애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게 한다. 물론 장애가 있어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이를 기사에서 언급하는 건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은 체육 분야 특히 패럴림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패럴림픽에 출전하거나 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 보도할 때 장애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다. 국가대표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고 메달을 따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찬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물론 선수에 대해 소개할 때 장애를 언급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해 자세한 설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기사의 초점은 선수이지 장애가 아니다.

< 2021, 2022년 패럴림픽 관련 부적절한 표현 >

구분	내용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흥채가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동아일보, 2022.03.03., 스포츠 29면> · 2006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당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뒤 세상과 담을 쌓았던 그가 2018년 '평창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한겨레, 2022.03.04., 스포츠 22면>

구분	내용
2021 도쿄 하계패럴림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날 때부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가 손상되면서 운동신경이 마비된 최예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로 보치아를 시작했다. <경향신문, 2021.08.23., 스포츠 23면> · 스토리는 왼팔에 장애가 있다.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 왼팔이 탯줄에 감기면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고, 기능도 약하다. 왼손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2021.08.26., 스포츠 23면> · 온몸에 파편이 박혔고, 화상도 심했다. 7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도 크고 작은 수술이 이어졌다. 겨우 생명은 살릴 수 있었지만 두 다리는 절단해야 했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경향신문, 2021.08.27., 스포츠 23면>

이처럼 언론의 보도는 표현 하나, 문장 한 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표현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하나의 표현이라도 부정적이면 사회의 인식에 강하게 각인된다. 부정적으로 자리 잡은 인식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천천히 누적되지만 금방 잊히고 부정적인 기사에 쉽게 가려진다. 부정적인 표현과 내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도 꾸준히 보도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식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언론을 지목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언론은 정부와 동일하게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2022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과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한국의 언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활동 사례를 보도하는 것처럼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선정적인 내용은 자제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태도, 이질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말, 2024 파리 패럴림픽이 개최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차 보고 이후 첫 패럴림픽이다. 언론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문을 되새겨 보길 바라며 이번엔 열심히 노력한 선수에게 실례가 되는 기사가 없기를 희망해 본다.



2024년 장애인체육 분야 예산 분석

고영란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 기본법¹⁾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형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²⁾」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스포츠는 특정 선수나 국위 선양의 전유물이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즉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의 제한·배제·분리·거부 불가 ▲ 체육프로그램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되어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³⁾에서도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항에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국가의 스포츠 정책과 세계 스포츠의 흐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의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를 향하고 있다.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⁴⁾ (2023~2027) 9개 정책 분야 중 다섯 번째 분야가 ‘체육·관광’으로 중점과제는 ‘장애인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이다.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24년 중앙정부와 17개 광역단체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17개 광역단체 분청 예산서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을 발췌·분석하였다.

1) 스포츠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 이 법은 법률 제18380호로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1년 8월에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이 법은 법률 제19701호로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2년 제정되었다. 현재 일부개정안을 거쳐 시행 중이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된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4)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23~2027) : 장애인복지법 제10조2에 따라 ‘98년부터 5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 3월 9일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2027년까지의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9대 정책 분야·30대 중점과제·74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 30조의 5(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I.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2024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총 656조 6천억 원으로, 2023년 638조 7천억 원 대비 17조 9천억 원(2.8%) 증액되었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7조 7천억 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이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총예산은 6조 9천억 원이다.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1.1%이다.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2천 200억 원으로 문체부 총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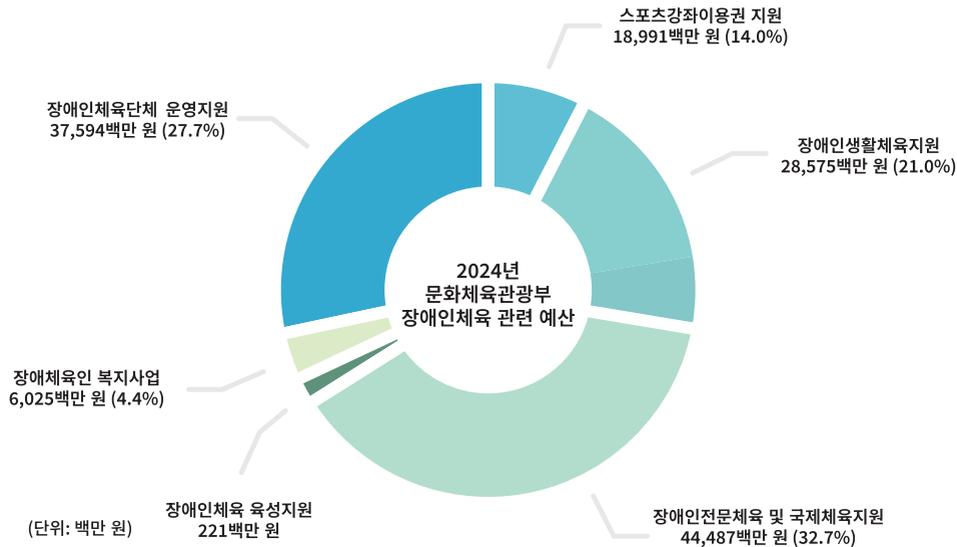
구분	중앙정부 총지출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문체부 총예산	문체부 장애인예산	문체부 장애인체육 예산
		(중앙 총지출 대비 비중)	(중앙 총지출 대비 비중)	(문체부 총예산 대비 비중)	(문체부 장애인예산 대비 비중)
2024년 예산	656,000,000	7,738,265	6,954,450	220,086	135,893
비율		1.2%	1.1%	2.8%	61.7%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 예산발체 자료)

이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1천 359억 원으로 문체부 총예산의 2.0%,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과 대비하면 61.7%로 절반 이상이다. 2024년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훈련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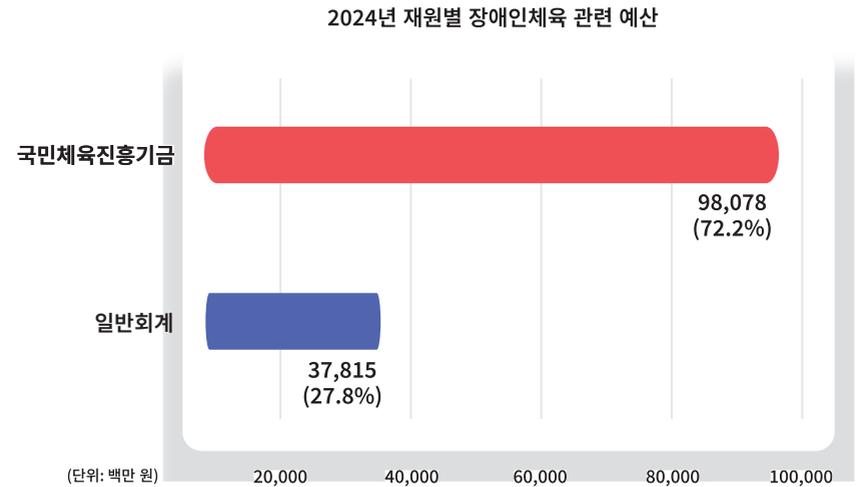
II.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현황

2024년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의 61.7%를 차지하고 있는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관련 예산은 총 6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다. 장애인체육 분야별 예산 금액은 △ 장애인체육 단체 운영지원 376억 원,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2억 원, △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445억 원,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86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90억 원, △ 장애인 복지사업 60억 원이다.



2024년 문체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1천 359억을 자원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 378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981억 원이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에 72.2%, 일반회계에 27.8%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분야 444억 원 편성

2024년 문체부 예산 중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분야에 444억 원(32.7%)을 책정하여 문체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선수 육성지원'에 207.4억 원,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에 107.2억 원, '장애인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지원'에 37.1억 원, '장애인실업팀 육성'에 19.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 과학화 지원'에 8억여 원 포함 약 15.9억 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 선수 훈련지원 확대 및 훈련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제고, 우수선수 육성 체계 구축과 주요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및 훈련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회 참가 및 장애인체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다.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현황 >

분야	주요 세부사업	금액 (예산 비중)	구분
장애인체육 단체 운영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9,980	일반회계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7,490	
	이천선수촌 지원	6,628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5,982	
		37,594 (27.7%)	

분야	주요 세부사업	금액 (예산 비중)	구분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63	일반회계	
	2024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지원	24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각종 회의	23		
	장애인체육 국제대회 및 스포츠 교류 지원	12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장애인 선수 육성지원	20,743	44,487 (32.7%)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	10,718		
	장애인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지원	3,710		
	장애인 동계스포츠 육성	2,731		
	장애인실업팀 육성	1,940		
장애인스포츠 과학화 지원 등	1,59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15,651	28,575 (21.0%)	국민체육 진흥기금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5,085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3,133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2,190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857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8,991	18,991 (14.0%)	국민체육 진흥기금
장애 체육인 복지사업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6,025	6,025 (4.4%)	국민체육 진흥기금
		135,893		

다음은 '장애인체육 단체 운영지원' 분야이다. 총 376억 원을 편성하여 문체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의 27.7%이다. 세부사업으로 대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지원으로 2023년 대비 19.8% 증액된 99.8억 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74.9억 원, '이천선수촌 지원' 66.3억 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 59.8억 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체육 시도지회 지원과 장애인체육 법인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분야에는 총 285.5억 원(21.0%)을 편성하였다. 세부사업에는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에 가장 많은 156.5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50.9억 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31.3억 원,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21.9억 원,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에는 8.6억 원이 책정되었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분야에는 총 장애인체육 예산의 14.0%인 189.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이 19세~64세에서 5세~69세로 확대되었고,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9만 5000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늘어났다.

장애 체육인의 복지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육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 체육인 복지사업' 분야에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세부사업에 60.2억 원(4.4%)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는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에 6,300만 원, '2024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지원'에 2,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각종 회의'에 2,300만 원, '장애인체육 국제대회 및 스포츠 교류 지원'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총 2.2억 원 편성되었다. 문체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중 가장 적은 0.2%의 비중이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장애인체육 예산

장애인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1,570억 원 편성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 포함된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속 장애인체육 예산 편성을 살펴보았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 체육관광(체육·관광 등 장애인 일상 속 여가 확대)

5-1. 장애인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

5-1-1. 사회통합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5-1-2.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5-1-3.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지속 확충

5-1-4. 장애 유형 정도·연령 맞춤형 생활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점과제 '5. 장애인체육 이용환경 지원 확대'에 총 1,5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5-1-1. 사회통합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⁵⁾'를 건립하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형 반다비 체육센터 전국 확대 및 운영고도화를 위해 2024년 3월 기준 전국 총 96개 반다비 체육센터가 선정되었고, 경남 4곳, 전북, 전남, 충북, 광주가 각 2곳, 경기, 경북이 각 1곳 총 14곳이 운영 중이다. 또한, 2024년에 18개소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선정과 운영현황의 편중에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5) 반다비 체육센터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정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8.14.)에 따라 장애인 우선, 비장애인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 반다비 체육센터 현황 >

시·도	선정현황	운영현황	개관예정(2024)
서울	1	-	-
부산	1	-	-
대구	2	-	-
인천	2	-	1
광주	4	2	-
대전	2	-	1
울산	1	-	-
경기	18	1	5
강원	6	-	3
충북	6	2	-
충남	14	-	3
전북	10	2	1
전남	11	2	1
경북	7	1	-
경남	7	4	2
제주	3	-	2
세종	1	-	1
소계	96	14	18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5-1-2. 장애인스포츠킴자이용권 지원 확대’에는 189억 원이 편성되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였다. ‘5-1-3. 장애인체육인증센터 지속 확충’에는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체육인증센터 지속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스포츠킴자이용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 대상	19 ~ 64세	5 ~ 69세	-
이용 금액	월 9만 5000원	월 11만 원	1인당 / 12개월

III. 2024년 광역단체 본청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현황

전남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비율 11.1%,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2024년 광역단체 본청별 장애인예산과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은 아래와 같다. 17개 광역단체 본청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은 평균 3.9%이며, 광역단체 본청 장애인예산 대비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비율 평균은 3.1%이다. 광역단체별 장애인체육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서울특별시로 283.0억 원이다. 다음은 전라남도도 172.5억 원을 편성하였다. 인천광역시 145.4억 원, 울산광역시 120.2억 원 순이다. 반면 전라북도가 29.0억 원을 장애인체육예산으로 편성해서 17개 광역단체 본청 중 가장 적은 예산이다.

< 2024년 17개 광역단체 본청 장애인체육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

시·도	총예산(A)	장애인예산(B)	장애인체육 예산(C)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B/A, %)	장애인예산 대비 장애인체육 예산 비율(C/A, %)
서울	45,740,517,556	1,789,886,164	28,307,467	3.9%	1.6%
부산	15,699,527,956	683,378,840	11,705,012	4.4%	1.7%
대구	10,587,194,000	508,941,344	8,730,178	4.8%	1.7%
인천	15,036,805,037	498,385,312	14,546,611	3.3%	2.9%
광주	6,904,221,482	423,913,822	7,217,150	6.1%	1.7%
대전	6,532,974,000	421,657,132	9,418,457	6.5%	2.2%
울산	4,793,293,135	227,251,330	12,024,932	4.7%	5.3%
세종	1,905,977,882	72,759,413	3,671,021	3.8%	5.0%
경기	36,121,055,812	1,381,390,319	5,538,420	3.8%	0.4%
강원	7,586,161,000	226,113,342	5,380,639	3.0%	2.4%
충북	7,128,875,273	265,015,991	9,528,195	3.7%	3.6%
충남	9,922,034,000	343,040,817	9,635,004	3.5%	2.8%
전북	9,105,133,909	349,460,666	2,906,579	3.8%	0.8%
전남	10,704,417,553	155,126,600	17,250,355	1.4%	11.1%
경북	12,607,756,000	417,057,752	5,797,410	3.3%	1.4%
경남	12,056,943,042	526,495,874	12,875,865	4.4%	2.4%
제주	7,210,363,118	126,530,584	7,608,180	1.8%	6.0%
			172,141,475	3.9%	3.1%

*발해진 장애인예산과 장애인체육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사·도비가 포함된 금액임

광역단체별 장애인체육 관련 정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수치는 장애인예 산 대비 장애인체육예산의 비율이다. 장애인체육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했던 서울특별시시 장애인 체육예산 비율이 1.6%에 그쳐, 17개 광역단체 평균 3.1%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서 울특별시 다음으로 장애인체육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11.1%라는 비율을 보이며 17개 광역단체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6.0%, 울산광역시 5.3%, 세종특별자치시 5.0% 순이다. 경기도는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31개의 지자체를 포함하고 총예산 및 장애인 예산(1조 3813억 원)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지만, 장애인체육예산은 55.3억 원으로 하위권, 비 율 0.4%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관련 시·도비 예산 비율 99.7%

다음은 광역단체 본청의 장애인체육예산 중 시·도비로 편성된 주요 사업예산 현황이다. 17개 광 역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예산의 시·도비 비율이 99.7%로 가장 높다. 체육진흥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주요예산이 편성되었다. 주요예산은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 지원(46억 원), 장 애인 국내외 스포츠대회 지원(10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3.9억 원)이다. 이 외 장애인 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6천만 원), 전국장애인 e스포츠 체험캠프(5.4천만 원)에 지원되고 있다.

< 2024년 광역단체 본청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현황(시·도비) >

(단위 천 원. %)

시·도	주요 사업명	장애인체육 시·도비	부서명
서울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1,259,897	체육진흥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42,000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4,852,607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곰두리체육센터)	1,016,37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1,529,115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	576,576	
	서부재활 체육센터 외 3개소 기능보강	555,547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353,500	
부산	장애인체육시설 관리	2,928,000	체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체육지원(자체)	3,412,70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246,400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739,83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61,162	
	장애인체육시설 개보수지원(한마음)	208,800	
	시도장애인체육 지원(국가직접지원)	238,800	
	구군장애인체육지회 운영지원	140,000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 지원	120,000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정밀안전점검	15,000	

시·도	주요 사업명	장애인체육 시·도비	부서명
대구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3,391,524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운영	1,385,907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0,832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426,673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418,400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95,03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28,840	
	장애인체육 특장버스 운영	68,000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3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시설 위탁관리	5,554,175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759,019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1,520,656		
장애인선수 육성	1,502,695		
장애인 전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807,330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	697,37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36,214		
장애인생활체육대회	32,000	체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선수 육성	5,250		
장애인체육진흥	4,056,46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391,27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11,078		
장애인국민체육센터운영	536,000		
장애인체육관운영	407,000		
장애인체육센터건립	233,325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편의시설개선	45,000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개최	7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시설관리및설치	26,000		
장애인체육육성지원	2,654,107		
시립 체육재활원 운영	1,536,290		
장애인체육회 운영	1,242,630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995,923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37,834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직접)	407,13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202,153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14,642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87,515		
대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40,000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육성 사업	38,000		

시·도	주요 사업명	장애인체육 시·도비	부서명	
울 산	장애인체육관 운영	3,474,678	체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1,240,641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지원	276,000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장애인체육관)	114,222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4,546		
장애인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40,000			
세 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394,404	체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1,580		
경 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27,630	체육진흥과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관람 지원	281,850		
강 원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3,685,523	3,887,553 (72.3%)	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45,530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24,000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	30,000		
	장애인 체육 활성화	2,500		
충 북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6,005,726	8,094,097 (84.9%)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	1,442,945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시군)	274,020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160,0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시군)	148,104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기능보강	32,000		
충 남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3,130	7,178,820 (74.5%)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체육회 운영	1,306,00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1,052,13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도)	324,670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자체 민간보조)	451,292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102,000		
	도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100,000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지원	75,00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69,358		
전 북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	626,040	1,001,438 (34.5%)	체육정책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78,398		
	전북장애인생활체육대회	86,000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70,000		
	유형별 장애인체육대회지원	41,000		
전 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98,432	7,019,591 (40.7%)	스포츠산업과 장애인복지과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120,00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66,28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34,200		
	장애인 행사 지원(체육대회)	9,400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4,000			

시·도	주요 사업명	장애인체육 시·도비	부서명	
경 북	도장애인체육회지원	3,231,000	5,797,410 (-)	문화관광체육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1,290,986		
	시군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685,080		
	도장애인체육대회개최지원	290,000		
	장애인체육대회지원	116,000		
	장애인체육관운영비지원	90,996		
	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31,293		
	자치단체체육대회지원	30,000		
경 남	장애인체육업무추진	2,097	9,507,043 (73.8%)	체육지원과
	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4,109,000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491,600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372,000		
	장애인체육활동 육성	271,000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72,141		
제 주	시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60,000	7,585,180 (99.7%)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31,302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 지원	4,621,080		
	장애인 국내외 스포츠대회 지원	1,000,000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765,000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장애인부)	553,900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92,200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00,000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보조율 90%)	60,000			
전국장애인스포츠 체험캠프(정책)	54,000			
장애인 국내외 스포츠대회 지원	39,000			
		123,419,710 (71.7%)		

*경상북도 예산서에는 모든 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도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체육예산을 발채 후 모든 예산을 시·도비에 포함시켰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예산을 체육진흥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다. 시·도비 237억 원을 편성하여 17개 광역단체 본청 중 가장 많고, 비율도 84.0%로 상위권이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112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과 기능보강(58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15억 원)이 주요예산이다. 특히, 장애인스포츠 배우처 지원(5.7억 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3.5억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121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시설 위탁관리(55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17억 원), 장애인 생활 체육활동 지원(6.9억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2.3억 원) 등을 시·도비에서 지원하며 83.3%의 비

율을 나타낸다. 대전광역시는 체육진흥과에서 84.5%의 시·도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체육육성지원(26억 원),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10억 원),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4억 원) 등 세부사업이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육성 사업(3.8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예산 시·도비 비율은 40.7%(70.1억 원)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고보조금에서 충당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도비 주요 사업은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1.9억 원),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1.2억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6.6천만 원),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3.4천만 원) 등으로 스포츠산업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시·도비 비율은 34.5%(10억 원), 경기도 21.8%(12억 원), 세종특별자치도 11.9%(4.3억 원) 순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관람 지원에 2.8억 원의 예산을 시·도를 편성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⁶⁾’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와전 실행자 비율)은 33.9%로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021년 감소 후 2022년 반등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47.3%)’으로 가장 많고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에 그쳤다. 이는 장차법 제2장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문체부와 17개 광역단체 본청의 장애인체육예산을 살펴보았다. 문체부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문체부 총예산의 2.8%, 그 중 장애인체육관련 예산은 2.0%에 그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본청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3.9%, 그 중 장애인체육관련 예산은 3.1%이다. 최근 국가 스포츠 정책과 현대 스포츠 트렌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의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정부와 광역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반대비 체육센터’ 등 신규시설 건립에 힘쓰는 동시에 기존의 공공스포츠시설을 노약자, 장애인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 등 예산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6)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애인체육과에서 연 1회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 10,000명 대상으로 2023년 9월~11월 2개월간 조사한 자료이다. (2022년 9월 ~ 2023년 8월 시점).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문화센터(stat.mcst.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슈포착



· 우리의 '언어'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

김효진 |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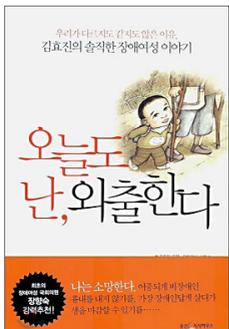
· 장애인아카데미 미술교육을 통해 본 발달장애인이 성장하는 오늘

이진 | 장애인아카데미 이사

우리의 ‘언어’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

김효진 |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 저자

장애인단체 대표, 인권운동하는 사람, 작가……. 나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여럿이다. 인권운동에 뛰어들어 지낸 20여 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인권운동도 단체장도 준비된 삶은 아니었다.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던 삶으로 이끌었던 동력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장애’였다. 누가 봐도 한눈에 척 알아볼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고, 우리 사회는 이런 몸에게 다분히 폭력적이었다. 철저하게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불행하거나 온통 슬프기만 하지는 않았다. 자주는 아니지만 나는 가끔 장애가 좋을 때도 있었다. 내 몸은 한 발짝 떨어져서 주변을 관찰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었다. 주변에서 보면 중심이 참 잘 보였다. 그리고 그런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다들 두텁게 걸치고 있던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가 되고 싶었던 듯하다.



첫 번째 산문집 『오늘도 난, 외출한다』를 출간한 뒤 비장애 여성작가를 불러 동료 장애여성들과 함께 글쓰기를 했다. 장애가 있는 몸을 우리 자신부터 긍정하고 몸에게 말을 걸어 보고 싶었다. 2007년부터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행, ‘일상을 작품으로’ 만드는 글쓰기, 장애여성 몸으로 글쓰기, 장애를 매개로 쉽게 글쓰기, 희(喜)스토리 허스토리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글쓰기를 했다. 볼품없는 몸, 쓸모없는 몸으로 취급하는 사회에 순응해 때론 감추고 외면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협상하거나 맞서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장 표현력이나 맞춤법 따윈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장애여성으로서 경험한 삶과 성찰의 힘이 있었다. 그것을 나의 ‘언어’로 담아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삶의 길을 조금씩 만들어 나갔다. 장애인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 여성주의저널 일다가 길을 열어주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연재했던 글들은 2012년에 『모든 몸은 평등하다』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 나는 그동안 세 권의 공저(共著)를 포함해서 열한 권의 책을 썼다. 주제는 줄곧 장애, 젠더, 인권이었다. 얼마 전 출간한 『오늘도 차별, 그래도 삶』에서는 장애와 여성, 노년이라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채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서사를 담았다.

이상하게도 글쓰기 앞에서는 무모할 만큼 솔직해졌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장애라는 차이가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솔직해질 필

요가 있었나 보다. 우리가 겪는 빈번하고도 다종다양한 차별이 얼마나 자주 일상을 뒤흔드는지 말하고, 그 차별에 맞서 다른 관점, 다른 세상을 열어젖히자고 독자들에게 말 걸고 손 내밀어야 하는 입장이기에 대담할 필요도 있었다. 우리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비장애 중심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대응하려면 용기가 필요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텐데 함께여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하는 일도 많은데 언제 글을 쓰냐고. 왜 그렇게 자주 책을 내느냐고. 2년에 한 권 정도 책을 내고 있으니 그리 비칠 수도 있겠다 싶다. 즉답을 하기 어려워 씩 웃고 말지만 나는 왜 글을 쓰는지, 글쓰기에 매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물었다. 내게 글쓰기는 나 자신과 대면하는 행위였다.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고선 한 발짝도 내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단체 활동에서 끊임없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연결하다 보면 자신과 마주할 여유가 없었다. 지체장애가 있는 나로서 그나마 글쓰기가 접근하기에 나왔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 시간을 내면 되었다. 아니 10분이라도 나와 대면할 시간이 절실했다.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걸보기와는 다르게 MBTI 유형 중 극단적인 I이자 T에 해당하는 나로서 글쓰기가 해방구가 되어주었다.

무사히(?) 정규 교육의 수혜를 받고 작가를 꿈꾸며 책속에 파묻혀 지냈던 청년 시절이 나를 글쓰기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거나 볼거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다. 달리 할 일도 불러주는 데도 없었다. 가끔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둘러보다 두어 권의 책을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사치였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 그토록 원했던 소설은 한 편도 쓰지 못했다. 인권운동, 장애인단체 활동이 소설보다 더 다이내믹해서 쓰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아직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도 가끔 작가로 불릴 때면 나는 여전히 설렌다. ‘나, 작가 맞아?’ 싶어 민망하고 어색하지만 본업이 아니다 보니 작가라는 정체성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어 매번 반성을 하고 있다.

하는 일이 많아서인지 나는 늘 어정쩡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장애예술계에서는 인권운동하는 사람, 장애계에서는 글 쓰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기도 하다. 그런데 글쓰기는 원래 외로운 작업이려니 여기며 기꺼이 감내하던 중 내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장애 문학인을 비롯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문학 팟캐스트 「A의 모든 것」 진행을 맡게 되면서 장애 문학인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1월 시즌 1에 작가로서 출연했다 다음해 시즌 2에 진행자로 합류하면서 2024년 6월 현재 시즌 5의 1회차 녹음을 마친 지금까지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수필가, 극작가는 물론 시론 작가까지 다양한 장애 문학인을 만나고 알렸다.

지난 4년 동안 「A의 모든 것」에서 장애문학인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에 합류하면서 나는 작가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편견에 도전함은 물론 이제까지 외면당해왔던 장애문학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길 한가운데에서 그간

잠재워 두었던 문학적인 감수성이 서서히 깨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팟캐스트 「A의 모든 것」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돼 낭송회라든가 작가와의 만남, 융합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독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장애문학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그 자체로 독특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예술 세계임을 많은 독자들이 폭넓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시적인 성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연예술이나 미술 전시에 비해 문학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소액의 창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문학 작품을 독자에게 직접 건넬 수 있는 다양한 시도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애 문학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학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접근성은 시설 접근성만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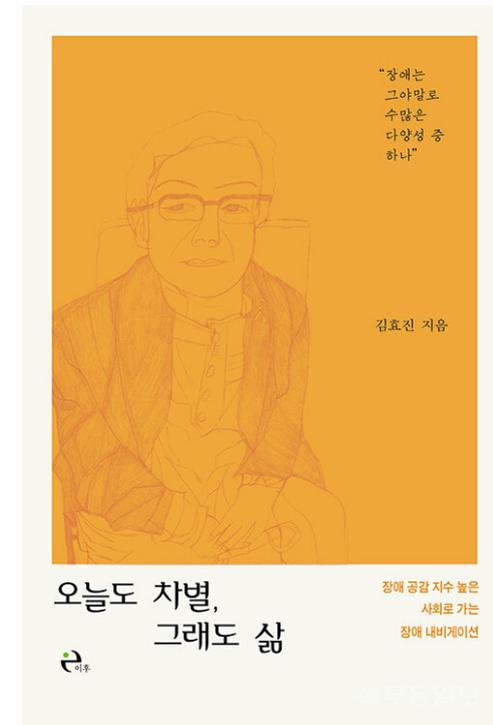
학령기 때 교육 차별을 경험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문학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분야이다. 이동, 접근의 장벽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을 기회에서도 배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문학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최초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되어 왔던 인문학적인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에, 현재 문해교육, 검정고시에 치중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예술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 수 있다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최근 ‘장애 가시화 프로젝트’(Disability Visibility Project(DVP)) 활동이 활발하다. 장애인들의 삶을 충실히 반영하고 다양한 경험을 세상에 전파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결과물은 미 장애인법(ADA) 제정 30주년을 맞아 장애 당사자들의 에세이 선집 『Disability Visibility: First-Person Stories from the Twenty-First Century』에 담겼고, 우리나라에서도 『급진적으로 존재하기: 장애, 상호교차성, 삶과 정의에 관한 최전선의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장애 유형은 물론 다양한 인종·계급·젠더적 정체성을 가진 저자들이 쓴 에세이들이 담겨 있어 구체적 언어로 자신을 ‘장애화한’ 사회가 실패했음을 전하고 있다. 구조적 부정의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내며 살아온 장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장애 중심적 세계를 향한 목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의미심장하다.

장애 문학의 독창성과 존재의 이유는 우리를 장애화한 사회에 목직한 질문을 던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문학은 상상력과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와 성찰인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그 동안 백인, 남성 중심적인 주류 문화에서 가려져왔던 다종다양한 장애인들이 ‘장애 가시화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3년 동안 놀랄 만한 장애 서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김지우 작가의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김한솔 작가의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 등 영향력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서사 외에도 정지음 작가의 『젊은 ADHD의 슬픔』과 같은 정신장애에서도 등장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다양한 계층·젠더적 정체성을 지닌 장애 작가들이 좀 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영상과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라지만 나는 여전히 문학의 힘을 믿는다. 문학을 통해 비장애 중심주의에 맞서 장애인의 ‘언어’를 갖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동료 장애인들과 함께 계속 글쓰기를 해나가고자 한다. 우리가 경험한 삶과 성찰을 담아 우리의 빛나는 ‘언어’를 빚어내고 싶다. 그렇게 간신히 이어져왔던 비좁은 삶의 길을 조금 더 넓혀 나가고자 한다. 우리의 구체적인 언어야말로 우리를 장애인으로 명명하고 구분 짓고 배제해온 비장애 중심적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가카데미 미술교육을 통해 본 발달장애인이 성장하는 오늘

이진 | 장애인가카데미 이사

2023년, 장애인가카데미에는 여러 번의 경사가 있었다.

여섯 차례에 걸쳐 <함께걸음> 잡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행)에 교육생의 그림이 실렸다. 처음에는 ‘쉽표’라는 꼭지에 두 컷, 두 번째부터는 표지를 장식하기도 하고 3컷, 4컷으로 점차 늘어났다. 제7회 한울타리전시회공모전(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에 제출한 한 편의 그림과 시가 입상을 했으며, 장애인스크린스포츠평대회에서 파워볼팀으로 참가하여 준우승을 하였다. 스타벅스에서 주최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텀블러그림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도 있었다.

장애인가카데미의 미술 수업은 주 2회 있는데, 화요일반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반이고 목요일반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성인반이다. 두 반은 같은 과목이더라도 전혀 다른 수업 분위기를 보인다.

지적장애 성인반은 언제나 시끌시끌하다. 이번 주 수업의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 선생님의 주제 설명이 있고 한 명씩 발표하게 했다. 엄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먹는 것, 킥보드, 트로트 가수, 하나님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누군가 발표를 하면 듣던 이들의 참견도 많다. ‘나도 좋아하는데’ ‘운동 잘해?’ ‘어느 교회 다녀?’ ‘그게 뭐야?’ ‘멋지다’

자폐성 장애 성인반은 도통 말이 없다. 선생님이 함께 오는 활동지원사나 부모님에게 먼저 물어 보고 나서 질문을 하며 확인해본다. 수긍하는 끄덕임 또는 단어로 대답하거나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한다.

지적장애 성인반에 참여하는 다운증후군인 Y씨는 처음에는 인사만 꾸벅하는 정도지 말을 하지 않았다. 6개월 쯤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다. 40대 중반인 Y씨는 간식을 챙겨와서 수업을 함께 듣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인심을 쓴다. ‘오빠, 멋있어요’ ‘형, 고마워요’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며 해해 웃고 이제는 문장으로 말을 하곤 한다. 열 마디를 하면 두 마디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엄청난 변화라며 활동지원사도 놀라곤 한다.

중증 지적장애인 J씨는 말이 없이 웃기만 했었다. 한글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이름만 그리곤 했다. 1년이 되어가는 요즘, 다른 이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엄마, 동생, 활동지원사 이름도 함께 적는다(글을 읽을 줄은 모른다). 맨스 시간에는 독보적인 춤사위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자폐성 장애 성인반의 L씨는 질투가 강하다.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잘 못하지만 옆의 다른 이가 주목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함께 오는 부모님의 성실함도 있지만 L씨 역시 꾸준함과 성실함은 눈에 띈다. 장애인가카데미에서 4년차 미술교육을 받고 있는 그는 처음에는 선긋기와 빼뚫어지고 구멍이 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작년 <함께걸음> 잡지의 표지에 그림이 실렸으며, 올해 ‘서울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에서 입선을 했다.

P씨는 많은 사람들이 서번트증후군이라 생각할 정도로 능숙하게 그림을 그려낸다. 속도도 빨라서 다른 이에 비해 두 세배는 많은 양의 결과물을 낸다. 방학이 지나고 오면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에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캐리커처 그리기를 시도해보았다. 영등포 행사 중 하나인 ‘휠더월드’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있던 날, 낯선 이들을 그리는게 괜찮을까 염려했으나 기우였다. 지나는 시민을 손을 흔들어 부르기도 하며 적극적이었다. 상대의 특징을 잡아내어 머리스타일부터 신발의 모양까지 그려냈고, 모두 날씬하게 그려서 선물받는 이들을 웃음짓게 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특수교육연구” 제 23권 2호)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부모가 생각하는 중요도 1위는 문화예술교육이었다.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는 장애유형별 선호하는 예술장르가 조사되었는데, 미술은 타 유형보다 발달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라고 했다. 이는 빛, 소리, 촉감에 대한 감각장애를 나타내는 발달장애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청각장애	기타
35.8%	14.9%	26.7%	27.6%	18.1%

인지나 표현이 다소 더딘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문화예술교육이라 해도 장애인가카데미의 다년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미술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교육을 매개로 의사소통 능력이 성장한다.

자주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며 오고 가는 대화로 여취가 늘어난다. 결석생이 있으면 안부를 묻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면 위로를 하기도 한다. 일자리가 있는 교육생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유머러스한 교육생은 괜한 장난을 걸기도 한다. 외우고 시험을 보는 학습이 아닌 서로의 일상이 만나는 자연스러운 관계,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지가 발달한다.

둘째, 자폐성 장애인들은 눈과 손의 움직임,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지의 발달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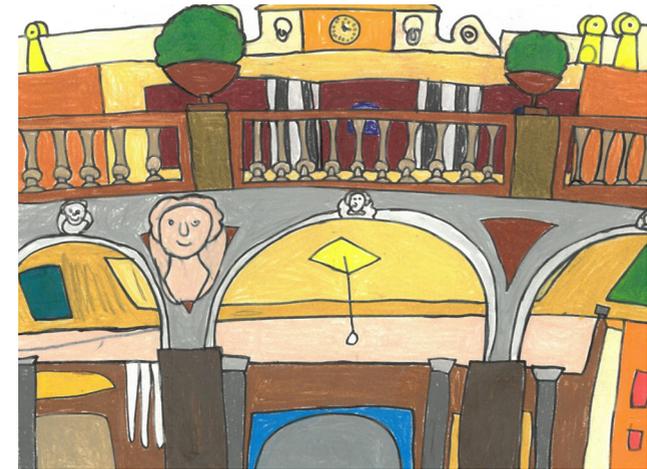
‘세계문화’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17개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의 국기, 민속의상, 대표 음식, 문화유산 등을 그렸었다. 말이



없으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며 그리는지 알 수가 없던 차에, 한 학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금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행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장애인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나라 중 자기가 좋아하는 영국의 근위병, 이층버스, 에펠탑, 영국과 프랑스의 국기를 스스로 그려냈다고, 그 그림을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주었다. 미술 선생님이 울컥한 순간이었다. 미술교육뿐이라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주제는 다양하다. 만나야 하는 세상에 대하여 다양한 호기심을 갖도록 교육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집에 머무는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관계 속으로 나서야 한다.

Y씨와 J씨가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말수가 늘고, 말은 잘 못하는 L씨가 질투는 나의 힘이 되어 발전하고,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던 P씨가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며 상대를 그려내는 것처럼 안타까움으로 대하는 가족보다 다양한 타인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며 변화, 발전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나와 가족을 떠난 사회 속에 답이 있다. 집 밖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연스럽게 성장해나간다.



시우 학생
풍경
2023



정희진 학생
자화상
2023

영화평



· 나란히 함께 걷는 길_장애인, 비장애인 투툭구조 영화들
류미레 | 푸른영상 감독

나란히 함께 걷는 길_장애인, 비장애인 투톱구조 영화들

류미례 | 푸른영상 감독

가만히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말 차별로부터 자유로운지. 오히려 스스로 차별을 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진 이 사회에서 차별의 막들은 개인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이 차별의 막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직접 부딪치고 깨져가며 알아가는 게 바른 길이지만 비장애인인 저의 처지에서는 일상에서 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부캐처럼 현실세계와는 독립적으로 미디어가 만들어낸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장애현실을 영화로만 배우다보니 늘 어설피니다만 그래도 ‘서당 개 삼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이 일도 오래 하니 규칙과 반복이 보입니다. 반복이라고 해서 늘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발전의 결과이자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은 영화를 변화시켜왔습니다.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정인 투톱구조가 특히 그렇습니다. 투톱구조는 주인공이 두 명인 영화를 뜻하는데 이번 호에는 장애인-비장애인 투톱구조 영화들을 폭넓게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글에서 언급하는 영화들을 같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네요.

투톱구조의 두 경향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세파에 찌든 비장애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하고 착한 장애인’ 설정입니다. <레인맨>, <제8요일>, <우리 형>, <호머와 에디>, <오! 브라더스>, <스플릿>, <형>, <나의 특별한 형제>, <그것만이 내 세상>, <아이 유스투 비 페이스> 등이 있겠습니다.

이 영화들에서는 두 주인공들이 다양한 상황들을 맞으며 우여곡절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결말 부분에 다다르면 비장애인들은 인간적으로 변해있습니다. 착한 장애인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영혼으로 세파에 찌들었거나 타락한 비장애인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 속 장애인 주인공들은 대부분 어렵거나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불량하거나 세파에 찌든 비장애인들은 이들에게 여러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자기는 영혼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다른 경향은 부유한 장애인을 돕는 가난한 비장애인이라는 설정입니다. <미 비포 유>, <언터처블: 1%의 우정>, <퍼펙트맨>, <보살핌의 정석>과 같은 영화들이 바로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영화들을 더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연장되고 있으니 이러한 영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신체적 기능은 예전같지 않아서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나이가 들고 각종 사고를 당하며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라는 관용구를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거든요. 돌봄의 시대에 돌봄의 실상을 영화로 한 번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 비포 유>의 월은 여행광이자 만능 스포츠맨 이었고 성공한 사업가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때문에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어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또다른 주인공 루이자는 간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맡습니다. 면접을 통해 채용은 됐으나 월과 루이자의 관계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월은 루이자의 우스꽝스러운 웃, 썰렁한 농담들이 맘에 안들고, 루이자는 자기를 멍청이 보듯하고 못되게 구는 월이 치사하기만 한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은 상위 1% 귀족남과 하위 1% 무일푼의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화에 근거한 이 영화는 하루 24시간 내내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 백만장자 필립과 구직 희망자 중 자격증도 없이 건강한 신체만이 전부인 하위 1% 무일푼 백수 드리스의 우정에 대한 영화입니다. 필립은 거침없이 자유로운 성격의 드리스에게 호기심을 느껴 특별한 내기를 제안합니다. 드리스는 엉겁결에 내기를 수락하고 그렇게 극과 극, 두 남자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할리우드에서 같은 내용으로 리메이크된 <업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맨>은 인생을 위해 한탕을 꿈꾸는 건달 영기와 살 날이 두 달 밖에 안남은 로펌 대표 장수의 버킷리스트 실행기입니다. 조직 내 실세에서 밀려난 영기는 주식 투자를 위해 조직 보스의 7억 원을 빼돌렸다가 한 순간에 날립니다. 마침 그 때 장수가 사망보험금을 조건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은 진짜 우정을 맛보며 진정한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보살핌의 정석>은 인생의 비극으로 어려움을 겪고 간병인이 된 은퇴작가 벤과 ‘뒤센 근위축증’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십대 소년 트레버의 이야기입니다. 트레버는 못된 장난을 일삼는 악동이지만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는 벤은 이런 트레버를 잘 견뎌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유대감을 공유하고 트레버가 TV를 통해서 본 영동하고 특이한 관광명소들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섬으로써 영화는 로드무비가 됩니다.

익숙한 설정 각각의 변주

큰 설정은 비슷해보이지만 각의 영화들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미 비포 유>의 경우는 존엄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루이자를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 장애를 가진 후의 삶은 자기 인생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영화는 익숙한 로맨스영화의 길을 벗어나며 특별해집니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고 이후 그 삶을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을 토로하며 자신이 하려는 선택을 이해시키려는 월의 태도 덕분에 관객들은 루이자의 입장에서 존엄사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언터처블: 1%의 우정>은 우정에 대한 영화, 장애에 대한 영화, 그리고 계층 간의 화해에 대한 영화입니다. 드리스는 세네갈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폴레랑스를 말하는 프랑스에서도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고 그 갈등이 빈부의 격차로 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시대상황의 덕을 봅니다. 1%의 가능성밖에 없는 희귀한 우정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이 주목받았고 그래서 그 실화가 먼 곳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이 영화를 상위 1%짜리 흥행작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11년 프랑스에서 개봉해 10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역대 프랑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 국내에서는 2012년 개봉해 18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역대 국내 개봉 프랑스 영화 중 최고 스코어인 ‘레옹’을 누릅니다.

<퍼펙트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층민이 중도장애 때문에 절망에 빠진 부자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익숙한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엄청난 부자와 엄청난게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각자의 사연을 펼쳐놓는데 그 사연을 따라가다보면 세상에는 돈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수가 워낙 부자니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편의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그런 도구나 장치들이 보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또한 클럽장면을 통해 아무리 부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장애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법 전문가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조항을 줄줄줄 외운 끝에 클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권교육과 영화라서 가능한 판타지를 선사합니다.



<보살핌의 정석>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앞서 소개한 모든 영화들을 한 번씩 짚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벤과 트레버의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영동하고 특이한 관광명소들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사실 트레버에게는 해결해야 할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문제였습니다. 트레버의 발병사실을 알게 되자 그 길로 집을 떠나버린 아버지는 미안함 때문인지 계속 편지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편지는 미개봉인 채로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쌓여가는 편지만큼 무거워져가는 트레버의 마음이 걱정된 벤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벤: 내가 널 돌보면서 속죄라도 하는 줄 알아?
네가 날 치우해주길 바란다는 거야?
내 아들은 죽었어. 난 나를 치우하지 못해.

트레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각자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영정이 닦아주면 보수를 주는 관계로 끝내죠.



대사들로만 봤을 때엔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 느껴지고 관계의 어떤 측면이 깨진 것도 사실이지만 덕분에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영화는 그동안의 장애인-비장애인 투톱구조들이 반복해서 보여왔던 어떤 경향들도 깨뜨려버린 채 한 단계 나아갑니다.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기

저번 호에 이어서 이번 호도 저는 창작자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실 세계를 잘 모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감각하는 세계와 비장애인인 제가 감각하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2023년 8월 교통사고를 당해 올해 2월까지 병원에 입원해있었고 현재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재활수영을 신청했더니 상담에만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지금 대기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는 “당사자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하지만 미래는 잘 모릅니다. 여전히 당사자로서의 감각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디어 속 장애현실은 어느 정도 압니다. 미디어 속 장애 세계는 늘 조금씩 변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고 그 한 걸음을 발견하면 저는 그 성취를 기억하려 합니다.

투톱구조의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그려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두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결핍된 가치를 선사하며 변화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개한 <보살핌의 정석>은 그렇더라도 각자의 문제는 각자 해결해가자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선을 넘지는 말자고, 하지만 각자의 자리는 잘 지켜가면서 끝까지 함께 가보자고.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이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너무 먼 곳을 가리켜서는 안됩니다. 창작자들은 그렇게 장애현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성취를 기억하면서 한계를 짚어내는 일. 이 일을 '모니터링 보고서'의 독자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